

진안 마이산조합 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 구조개선 '우수'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성공 추진 높이 평가

진안마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진안조공법인)이 산지유통 구조개선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최근 진안군에 따르면 진안조공법인이 15년도 농산물 산지유통 추진결과에 대한 전라북도 구조개선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아 지부예산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진북도와 진안군, 4개 지역농협은 2013년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진안조공법인(대표 김연태)을 설립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산지의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농산물을 규모화해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 시행 3년째인 2015년부터 통합마케팅의 성과가 나타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참여농가가 지속적으로

로 늘어났다.

지난해 메르스라는 복병이 있었지만 다행히 진안조공법인 총취급액의 40%를 차지하는 진안고원수박의 출하시기인 7월 중순 전에 메르스가 종식되고 7~8월의 기후가 좋아 고품질의 진안고원수박이 생산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좋은 기후가 모든 농가들의 한해 동안의 수고로움을 보상에 주지는 못했다. 진안군의 주요 농산물인 사과를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많아 농가들은 헐값으로 도매시장이나 청과상에 출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진안조공법인에 위탁하여 공동선별·공동출하한 농가들이 1년간 흘린 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안조공법인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직원들의 열정으

로 '14년 대비 공동선별·공동출하 농산물의 취급액은 15억원, 단순 출하권 위임 농산물 취급액은 24억원, 총 취급액 42억(78% 향상)이 성장한 100억원의 취급 실적을 달성하였다.

진안조공법인의 가파른 총취급액 성장은 출하농가에 대한 진안군(군수 이항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단순 출하권 위임 농산물 운송비 지원은 진안조공법인 총취급액 성장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진안조공법인 김연태 대표는 "성공적인 농산물 통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행정의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진안조공법인 직원들의 적극적인 열정적인 마케팅 활동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규모화된 농산물의 하나인 유통정책만이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제오픈 태권도페스티벌 개막

무주 태권도원서... 10개국 1700여 명 참가

2016 국제 오픈 태권도페스티벌이 28일 태권도원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T1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전라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과 황정수 군수, 이승안 대한태권도협회 상임고문을 비롯한 각 시·군협회장들과 선수 등 2천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기념식과 선수·심판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K-Tigers 시범단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황정수 군수는 "2017 무주 WTP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이하 2017 무주대회)의 개최를 앞두고 마련된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국제 오픈 태권도페스티벌만의 차별화된 매력에 발산되고 2017 무주대회와 태권도원을 세계 태권도인들의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도태권도협회(회장 유영환)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국가원과 전라북도 무주군과 무주군태권도협회가 후원하는 2016 국제 오픈 태권도페스티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10개국 1천 7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으며, 3월 1일 까지 공인 품새와 격파(손날, 주먹, 높이, 속도), 스피드키, 태권체조 등 종목에서 개인과 단체전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2016 국제 오픈 태권도페스티벌 참가 선수들은 "태권도 성지에서 세계 선수들과 함께 그동안 같고 다른 실력을 뽐낼 수 있어 굉장히 설렌다"며 "권위있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 터미널에 설치된 탄소발열의자에 군민들이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진안군, 따뜻한 교통복지 추진

시내버스노선 조정 탄소발열의자 설치

진안군이 따뜻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버스(무진정지역)와 노선조정 협의를 통해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진안군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오전 2회, 오후 2회 운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동부신약점 거점병영으로 개편한 진안군의료원은 내과와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과가 운영되어 많은 군민들이 의료원을 방문하고 있으나 공용버스터미널과 약간의 거리가 있어 이용객의 대다수가

교통약자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군은 이런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여려차례 노선조정 협의를 해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노선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따뜻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진안공용버스터미널과 버스승강장 13개소에 군비 33백만원을 투입해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했다. 탄소발열의자는 열전도성이 우수한 탄소섬유로 제작된 의자로 온도와 타이어를 맞춰두면 의자의 온도가 평균 30°C 이상으로 올라가며, 탄소섬유로 제작돼 낮은 소비전력으로 열 전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군민자유발언대 '나들이 완주' 내달 시작

매월 2회 이상 운영 군민과의 소통 확대

완주군은 현장 중심의 군민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나들이 완주'가 3월부터 운영한다.

'나들이 완주'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부르며 기억하기 쉬운 수 있는 군민자유발언대 네이밍 공모 결과 '나의 마음(말)을 들어주는 이 곳 소

통 1번지 완주'가 선정되어 2016년 군민자유발언대 정책 네이밍으로 선정됐다. 2016 찾아가는 군민자유발언대는 3월 이서면을 시작으로 11월 용진읍까지 매월 2회 이상 운영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군민과의 소통·공감 확대를 위해 ▲ 현장방문(완주군의 13개 읍·면 중 2~3개 벽·오지 마을 방문) ▲ 공모신청(홈페이지 접수) ▲ 임시설치(축제, 교유, 행사, 등) ▲ 상시설치(군청사 1층 로비)

등 발언대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주민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발언 내용에 따라 개인사업, 제안 및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균등 현안 사업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전달,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군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촬영된 동영상은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군민과의 공유를 위해 사안에 따라 완주군 소통홈페이지 '완주 북북'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기자

장수 한누리종합운동장·공설운동장 주민쉼터로 새단장

관람석 보수·녹지 공간 확충

장수 한누리종합운동장과 공설운동장 일대가 지역주민 쉼터로 새롭게 조성된다.

군은 한누리 종합운동장 정비사업으로 총 4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관람석을 보수하고 주변 수목 식재를 통한 녹지 공간 확충으로 군민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종합운동장을 사계절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4억5천만원을 투입해 장수공설운동장 인근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신규모 조성, 노인 및 가족단위 여가생활 공간을 확충하고 인조 잔디 구장 설치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생활체육인들의 사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비 1억5백만원 등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 장수 공설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확충, 유도블록 체계화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장애인

전 전용 관람석 진출입로 확보 등 각종 편의시설을 보장하는 등 그동안 각종 행사 및 체육경기에 소외된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학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권역산업과
063-430-2951

국립특린스

무주군,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무주군은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사회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중개행위와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보수 과다징수행위, 부동산실거래가액 허위기재 또는 신고누락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부동산 매매 등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알리는데도 주력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민원봉사과 김연태 토지관리담당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의 공적장부,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며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간판에 표시된 대표자와 작성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봄철 도로시설물 정비

장수군은 해빙기를 맞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군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봄철 해빙기 도로시설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건설장비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안전점검 및 도로정비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장수군 내 169개 노선 714km 전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안전시설물 및 낙석, 붕괴위험지역 도로과손 등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위급국도 13호선 비행기 등 낙석붕괴가 예상되는 위험도로 점검을 강화하여 중점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완주군, 이월체납세 징수 총력

완주군이 2016년 이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별동기동태' 자동채번호란 영치하고 영치하기 위해 매일 출장, 5만여건의 체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액체납자 편의 출장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청, 150만원 초과 월급 수령자에 대한 봉급인입 예고서 발송, 319대에 대하여 차량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위하여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하고 '관회사제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군 지방세 이월체납액 35억8천만원의 30%인 10억7천400만원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1억5천8백만원의 20%인 6억3천100만원을, 행정자치부 상반기내 조기 징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지난 28일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2016년 1분기 진안군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이항로 군 통합방위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16년 통합방위 추진계획 보고와, 다음달 14일부터 실시되는 1F(독수리훈련) 상황보고,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한 안보동영상 시청을 하였다.

/진안=우태만기자